

息重經


563

樂泳

1748  
2



1948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부오의은가  
이러 

如是我聞一時佛在王舍城閼衛國祇樹給孤

獨園與大比丘三萬八千人菩薩摩訶薩眾余

時世尊將領大衆往請南行見一堆枯骨余時

如來五體投地禮拜枯骨阿難大衆白佛言世

尊如來是三界大師四生慈父衆人歸敬云何

禮拜枯骨 〇

일시에부텨왕사성의데주소삼만팔천두리

고거시더니대죽은능솔을사남녀고로가

시다가사른미색보시고절음시거늘아란

과대중이부터 씨솔오디세존하삼계예스  
송이시고수신의아비시니사룬미다고그  
능거든엇테써보고절후시느니잇고





佛告阿難汝雖是吾上足弟子出家深遠知事  
未廣此一堆枯骨或是我前世翁祖累世爺孃  
吾今禮拜

부테아란드려나르샤다테비루나의웃듬  
데시오집나편디오라프이르문모르느도다  
어씨전싱의나의하나비어나부외어나흔  
시절동노라

佛告阿難汝將此一堆枯骨分作二分若是男  
子骨頭白了又重者是女人骨頭黑了又輕阿  
難白佛言世尊男人在世在帶靴帽裴裏即知

是男兒之身女人在世濃塗赤珠臙脂蘭麝  
累卽知是女流之身如令死後白骨一般教  
子如何認得

부테아란도려나르샤던네이샤를동회초  
호라남주의샤논회오므겍고녀어녀샤논  
겍고가브여우니라아라니손오뒤세준하  
남주는이싱의이실체한삼님과셔셔오회  
신고이실셔남주의모인줄알오녀이논분  
비르고연저탁고샤향초고단자웅여이실  
셔녀이녀모인줄알어니와이제논주근후

의 씨호가지어든 잇테알리잇가

佛告阿難若是男人在世之時入於伽藍聽講  
誦經禮拜三寶念佛名字所以骨頭白了又重  
女人在世恣情媵欲生男養女一迴生箇孩兒  
流出三斛三勝麩血飲孃八斛四斛白乳所以  
骨頭黑了又輕阿難開語痛割於心垂淚悲泣  
白佛言世尊母恩德者云何報答

부테아란드려니르샤디남조는사라실제  
더리가경도닐그며부터도저소오며념불  
도호시씨희오므집고녀이논쁘디하전되

오모스미음티용니흐번즈시나호매피서  
말서되흐르고아기도헌져즐여들섬너말  
머그모로써검고가브여우니라아라니  
매설위를며슬오디세즌하어미은파덕  
파를엇데하야사가프리잇고

佛告阿難汝今諦聽吾今為汝分別解說阿孃  
懷子十月之中極是辛苦

부테아란드려니르샤디네즈세드르라네  
너희위하야닐오리라어미즈식비여연돌  
스이에신피그지업스니라

阿嬢一首月懷胎恰如草頭上珠保朝不保暮  
早晨飛將來午時消散去

어미 주시비에호드리면회티플스티이슬  
기티아참잇고나죄업스니새배모닷다가  
나지스리디느니라

阿嬢兩箇月懷胎恰如撲落凝蘇

두두리면회티박낙하여얼인깃기트니라

阿嬢三箇月懷胎恰如凝血

셋두리면회티얼인피기트니라

阿嬢四箇月懷胎稍作人形

넉드리면회티점정사르미원구리이느니  
阿孃五箇月懷胎在孃腹中生五胞何者名為  
五胞頭為一胞兩肘為三胞兩膝為五胞

다섯드리면회티머리과두엇게과두무릅  
과이느니라

阿孃六箇月懷胎孩現在孃腹中六精開何者  
名為六精眼為一精耳為二精鼻為三精口是  
四精舌是五精意為六精

여섯드리면회티아기눈과귀과고과입과  
혀과뺨과여느니라

阿孃七箇月懷胎孩兒在孃腹中生三百六十  
骨節八萬四千毛孔

닐곱두리면회티아기삼백여순씨르티와  
팔만스천틸곱기나느니라

阿孃八箇月懷胎生其意智長其九竅

여동은리면회티아기백과디혜나며아음  
가지곱기기느니라

阿孃九箇月懷胎孩兒在孃腹中喫食不食挑  
梨蒜菓五穀飯味阿孃生箴向下熟箴向上有  
一座山此山有三般名字一號須彌山二號葉

山三號血山此山一度崩來化為一條寔血流  
入孩兒口中

아함드리면회티아기비안히셔을쉬멍기  
니복숭와비마늘파신머디말고오곡마슬  
머그라어미비안히셔장은아래로향후엿  
고사근자은우호로향후여인눈수이예할  
뫼히이시니슈미산나라조항며업사나라  
조항머피뫼경라조항니이안진뫼히라  
이뫼히뫼이그영의뫼피주리뫼영아피  
브힐러드니그라



阿孃十箇月懷胎方乃降生若是孝順之男擎  
拳合掌而生不投阿孃若是五逆之子擊破阿  
孃胞胎手攀阿孃心肝脚踏阿孃脰骨教孃如  
千刀攪腹恰似萬刃攢心如斯痛苦生得此身  
猶有十思

얼다 리면히티나스니호주엇아드르두손  
마초와나되이미를해타아너나고오여키  
아드르어되비로혜티며어미간늘자브며  
어미씨도박차니어미비갈로딜위기는듯  
시알체하스니이몸이나의열가지스은니라

第一懷就守護恩

처와 뒤범여셔몸  
간슈한논은너라

頌曰



累劫因緣重  
今來托母胎

月逾生五臟  
七七六精開

體重如山岳  
動止劫風笑

羅衣都不掛  
裝鏡惹塵埃

여러감인런니  
세와어리비예드도

다드리나드니  
고닐곰근리되니여

속카지경이어  
모이드기위되히  
돈나익빈람불  
뜻도담갑오스  
니늘나기울로  
그리져시도아

아

아

第二臨產受苦恩

고령세고돌초니슈  
고령세고돌초니슈

頌曰

懷經十箇月產難欲將臨

朝朝如重痛月月似昏沈

惶怖難成記愁淚滿曾襟

含悲告親族惟懼死來侵

비어열돌디나나나나  
시님당하도다아참아

다마다흔뎡흔듯하고  
다두리우미그지업스

며눈모리가스미가득  
어긔도나설은미슴물

어곰고천후은권다오  
리닐오더수글가

니리저허는노라

第三生子志憂恩

시세 체는 저식나하니  
시름내준은나라하니  
頌曰



慈母生君日五臟惇開張

身心俱悶絕血流似屠羊

生已聞見健歡喜倍加常

喜定悲還至痛苦徹心腸

어미 조식나하니  
장이다여갓도다  
미다거절하고피  
미양다한듯하고  
크아기건실타하  
브미타기오비하  
미도리혀나니  
못뜻도이가스

어미 조식나하니 오  
장이다여갓도다  
미다거절하고피  
미양다한듯하고  
크아기건실타하  
브미타기오비하  
미도리혀나니  
못뜻도이가스

第四咽呑의甘恩

제세는 받기어게 슬라

頌曰

父母恩深重恩憐無失時

吐甘無野息咽若不類肩

愛重情難忘恩深復倍悲

但令孩子飽慈母不詞飢

부모의은나 두음나 스  
랑이그지업도다든거

슬토할아머기나쁜것  
머글제병의다아나호

노도다스라이동호너  
적을참디몰호고온나

기프니다식슬프고설  
우아비능도다아기롤

비브르게호고어이호  
주려도스야아니호다



第五迴乾林濕恩

다스체는아기란므로頌曰  
누이고출된놈은은頌曰



母自身俱濕將兒以就乾

兩乳充飢渴羅袖掩風寒

恩怜恒庶踐寵美振能歡

但令孩子穩慈母未求安

어미는출터도라남고  
아기란민룬터누이낫

도다두저스로주리낫  
돈어기고집소매로초

터덥낫도다어엇브너  
주이업고피노라하너

즐김도다다어미기글  
편안게하고어미는편

아나호물쿠터  
아나호물쿠터

第六乳哺養育恩

의 새는 젖어  
기치는 온니라

頌曰



慈母象於地嚴父配於天

覆載恩符芽父孺意亦然

不憎無眼目不嫌手足學

誕腹親生子終日惜無憐

어미는 싸근고 아비는  
하늘과 트니 온회부모

와 홀가치로 다의 여아  
니호니 눈 흘길 제 거 업

고 형의 룬 마슴이 업스  
니 손바 리너 섯도 다 천

술 주시 클 나 호 니 저 으  
두룩 앓 거 호 터 니 으 버

호는  
도다

第七洗濁不淨息

닐금새노식노라  
니조티아니호은나라  
頌曰



憶昔美容質  
娉媚甚豐濃

肩分翠柳色  
兩臉棄蓮紅

息深摧玉貌  
洗濁損盤龍

只為憐男女  
慈心改顏容

어의양저네노합고손

저티니눈서분배들님

고고뚜귀미(튼틴긋고

티니라조식기리노은

니갑프니고은양저사

호나이되오섯노라다

니반용이손호노도다

조시글사랑호노라다

기이의양초노



第八 遠行憶念恩

이 돌출치는 저 시기가 나  
 頌曰



死別誠難忍 生離亦悲傷

子出開山外 母意在他鄉

目夜心相逐 流淚數千行

如猿哀愛子 憶念斷肝腸

주거의 희문 전 실로 참  
 더 온 한 거니 와 사라셔  
 여 회 미 디 목 설 브 다 아  
 드 리 관 산 밤 과 나 가 시  
 너 이 의 브 디 타 향 의 잇  
 도 다 연 야 의 미 수 미 서  
 로 조 차 갓 크 눈 으 른 실  
 천 주 리 흐 르 듯 다 진 나  
 비 조 식 스 랑 흙 닦 트 야  
 수 량 호 간 장 콧 듯 도 다



第十究竟憐慈恩

父母之恩深重恩悻無失時  
起座必相逐遠近意相隨  
母年一百歲常憂八十兒  
欲知恩變斷命盡始分離



父母之恩深重恩悻無失時  
起座必相逐遠近意相隨  
母年一百歲常憂八十兒  
欲知恩變斷命盡始分離

부모의 은니 등하니 어  
엇버 일 할 서 업도 다 안  
조 나 니 나 단 스 미 서 로  
조 갖 고 어 나 갖 가 오 나  
브 디 너 로 스 차 갖 도 상  
어 의 나 하 베풀 새 라 도 상  
내 의 든 니 연 주 시 글 서  
름 흥 흥 나 스 니 그 초 들  
알 모 자 흥 면 병 이 잔  
하 야 여 회 스 나 라

佛告阿難我觀衆生雖紹人品心行猶蒙不思  
爺孃有大恩德不生恭敬棄恩背德無有仁慈  
不孝不義

부태아란느러니그사리사리미비주인누  
의이시나크스근어리니라부모의큰은더  
그늘스라。타아니여공경함口스물아나더은  
늘브리머더글더디고브호하느니라

阿孃懷子十月之中起坐不安如醉重擔飲食  
不下如長病人月滿生時受諸痛苦須臾好惡  
恐為無常如殺豬羊血流通地受如是苦生得

此身啞苦吐甘抱持養育洗濁不淨不憚劬勞  
忍熱忍寒不調辛苦乾處見卧濕處不眠三年  
之中飲母白血嫠孩童子乃至盛年傳教禮義  
婚嫁官學備求資業勞賀艱辛勲勞之終不言  
息紀男女有病父母病生子若病愈慈母方蹇  
如斯養育願早成人

어미는 식비여 열 들스이 예안스나니 나편  
타아니여므기운 빛멘드하며 머근 거시느  
리디아니여 병한사름기트니 드리차나흐을  
제슈피그지업고도하며 구조리잠산스이

예인노니양동다힐듯하야피흘러사히피  
디니슈피이러하니라푸머셔거름제기스빈  
물탄티아니며더위를참으며치위를참고  
슈표로여도스름으로아니하니라삼년스  
이예어미힐피먹고자라나거든테도기르  
치며흔인하며글기르치며여러가짓일기  
초와신고호된내중의인노니그디아니하  
느니라조시기병하면부외병이나노니그  
병이도게사부모도편하느니라이러듯시  
체일사름되와다원하느니라

及其長成返為不孝尊親共語應對恠悖拗眼  
戾睛欺凌伯叔打罵兄弟毀辱親情無有禮義  
不遵師範父母教令久不依從兄弟共言故相  
拗突出入往來不啟尊人言行高踈擅意為事  
父母訓罰伯叔語非妄勿憐愍尊人遮護漸漸  
長成狼戾不調不伏虧為逐生嗔恨棄諸親友  
朋附惡人習已性成遂為強計被人誘進逃竄  
他鄉違背爺孃離家別貫或因經紀或為征行  
往籍因循便為妖聚由斯留碍久不還家

不斗叶叶立立立立立立立立立立立立立立

거스러리답호며 족향도 소겨 업시 위디기  
며도 심도 티며 구짓고 어버시도 승흥야  
테 되 업스나스승의 버분 죽디아니 호 뜻다  
부모의 교령도의 조티아니 며히 테의 말도  
서르 거스리고 나드리 홀제 낯은 드러 니르  
디아니 코말 승과 힘시 리서 재여 제트도로  
호니 부외극치고 일은 니 뒤림 거든 점  
점주 라면 거스림 화도 티아니 여도 르혀 성  
석내니 나라 천호 버드란 버리고 모던 사르  
물조 차승성이 되며 모던 게고 호니 나라



미판애여든타향의나간부모도브리더집  
도여희오여러히디나면겨지분야오래드  
러오디아니스스니라

或在他鄉不能謹慎被人謀點攬事勾牽枉被  
刑責牢獄枷鎖或遭病患厄難縈纏困苦飢羸  
無人看待被他嫌賤倚弃街衢因此命終無人  
救療膨脹爛壞日曝風吹白骨漂零寄他鄉土  
便與親族歡會長乖父母心隨宋懷憂念或因  
啼泣眼閣目盲或為悲哀氣响成病或緣憶子  
襄變死亡作鬼暴魂不曾割捨

또다 향의가 쳐조심티 문호야 누미 씨에 갑  
거그르 둔니다가 죄너 버우괴 가티며 병호  
야 주러도 간슈호 리 업스면 누미 천히 더 거  
거리 에 티 리 누미 인호야 주거 도 구의 호 리  
업서 오 장 이 서 거 변혀며 비 람 불여 친 씨 타  
향의가 보려시면 아 숨과 환 디 누로 미 어 괴  
여 디 고 부 모 의 미 스 문 영 영 스 럼 호야 호 구 우  
다 가 눈 멀며 호 설 위 상 심 병 이 되며 호 구 주 거  
녕 호 니 되 어 도 닐 니 아 니 호 누 니 라

或復聞子一不崇老義朋逐異端無賴詹頑好習

無益闖打竊盜觸犯御間飲酒博蒲葺非過失  
帶累兄哥惱亂爺孃晨去暮還尊親憂念不知  
父母動止寒溫晦朔朝脯未乖扶持父母年邁  
形貌衰羸羞取見人嘆呵欺抑

또호도란아니코다근사오나온이름조  
여소절입손이름비화싸흠하며도주하  
가므슬희좌니브며인일지서동싱도더러  
이며부모도상심케하느니라새배나간나  
죄드러와부모의치우며더은즐도모르며  
한지되셔스미영영오고느니부되나어드

리양치사오나이되면남빈디부그러구지

고소기느니라

或復父孫母寡獨守空堂猶若客人寄住他舍  
床席塵土拂拭無時參問起居從斯斷絕寒溫  
飢渴曾不聞知晝夜恒常自曉自嘆應齎饌物  
供養尊親每詐羞慙異人恠笑或持時食供給  
妻見醜拙疲勞無避羞取妻妻約束每事依從  
尊者嗔喝全無畏懼

또글아비나홀어미나혼자분지익잇기든  
손그티비기다룬지비가살며좌사익들글

도쁘디 아니며 안부도 묻디 아니며 비록  
모을라도 모르고 지나바미나 조탄하  
니 미할 것보다 가어 버시며 기모 못그레  
기니는 문슈상히 너겨앗스니라 처조시  
기문더럽고 깃바도 못그려아니하스  
니라  
겨지비말란아무 일도 의중하  
고일우니  
구  
지럼은 전히 지티아니하스  
니라

或復是女通配他人未嫁之時咸皆孝順婚嫁  
已訖不孝遂增父母微嗔卽生怨恨夫婿打罵  
忍受甘心異姓他宗情深眷重自家骨肉却已

為踈或隨夫婿外郡他鄉離別爺孃無心戀慕  
斷絕消息音信不通令使爺孃懸腸掛肚常已  
倒懸每思見面如渴思漿無有休息父母恩德  
無量无边不孝之德率陳難報

또 쓸지 시기 미가 하여서는 다 효도 할다가  
흔인 후후의 브 효하는 니 부모는 잠만 구지  
저도 노하여 하고 남지는 티고 구지 저도 참  
고 감심히 너가는 니 식 권당으란 그치 업시  
디점하고 제 뒤슬 권당으란 소히 하는 니 또  
나쁜 조차 다 른 끝히 가 부끄러워 하되 또 그

리은口숨입고문안가름보내디아니하니  
어버시눈어느라하며고리나보고자호물  
몽그른제물브라트스느니라부모의은과  
덕기그시업고브호의죄도그지업스니라  
甬時大衆聞佛所說父母恩德舉身投地渾堆  
自摸身毛孔中悉皆流血悶絕躄地良久乃蘇  
高聲唱言苦哉痛哉我等今者深是罪人從來  
未覺冥若夜遊今悟知非心膽俱碎惟願世尊  
哀愍救拔云何報得父母深恩

데지다부터의니르시느부모은느느고입

티디여 제모든티니 털꾸무마다 피흐르고  
귀절은 여이승게 사셔여닐오디 설은다우  
리논이제죄인니로쇠이다이저닌아디몬  
하야바리노논듯하디니이제사아승오니  
가승미반사디논듯하여이다세손하엇테  
하여사부모의은늘갑소오리엇고

爾時如來即以八種深重梵音告諸大眾汝等  
當知吾今為汝分別解說

부테여늘가지말소모로대승드려니르샤  
디내티희를위하야골히여닐으리라



假使有人左肩擔父右肩擔母研皮止骨骨穿  
 至髓透須彌山經百八面猶不能報父母深恩  
 가사사르미부모를두엇게여가르메오슈  
 미산놀뵈천번도라외게써스모차도부모  
 의은놀갑디물동리라



假使有人遭飢饉劫為於爺孃盡其已身藥割  
 碎壞猶如微塵經百千劫猶不能報父母深恩  
 가스사르미가난호히우늘만나부모를위  
 하여야모를다버혀브사내며뵈천겁디나도  
 부모의은을감디못후리라



假使有人手執利刀為於爺孃刻其眼睛或於  
如來經百千劫猶不能報父母深恩

가스사르미부모위하야갈로는스스름을  
아내여부터미발좁고빅천겁디내어드부  
모의은늘갈디문하리라



假使有人為於爺孃亦以利刀割其心肝血流  
遍地不詞痛苦經百千劫猶不能報父母深恩  
가사사근미부로위하야갈로가슴물버혀  
피흘러사해되다며북천겁리내여드부모  
의은닐갑디몬후리라



假使有人為於釜爨百千刀輪於自身中左右  
出入經百千劫猶不能報父母深恩

가스사르미부모위하야빅천살로모매드  
로고자빅천겁디내여도부모의기쁜은혜  
를감디못누리라



假使有人為於爺孃體掛身燈供養如來經百  
千劫猶不能報父母深恩

가스사르미부모를위하야모므로공을사  
마부러씩블혀고빅천합디내어조부모의  
기픈은늘감디몸을리라



假使有人為於齋爨打骨出髓百千 鮮戟一時  
刺身經不千劫猶不能報父母深恩

가사라미부모위하야제셔로브스티골  
슈내며빅천김디나도부모의기픈우혜를  
간피모른후리라



假使有人為於齋爇吞熱鐵丸經百千劫遍身  
焦爛猶不能報父母深恩

가스사극미부모의공야티은식무저글머  
곰고모미다디이된천겁디나도부모의은  
늘감디모의하라





余時大衆聞佛所說父母恩德垂淚悲泣白佛  
言世尊我等今者深是罪人云何報得父母深  
恩佛告弟子欲得報恩為於父母書寫此經為  
於父母讀誦此經為於父母懺悔罪愆為於父  
母供養三寶為於父母受持齋戒為於父母布  
施修福若能如是則名為孝順之子不作此行  
是地獄人

대중이 부처의 니라시니 부모은덕을 듣고  
울며 세존의 손오디 우리노이 제 죄인 니라  
엇테야 부모의 은덕과 보스오리 잇고 부

테니로 사디 부모의 은 놀 갑 고 자 하 거 든 부  
모 위 하 야 이 경 을 써 닐 도 며 저 의 지 수 진 로  
뉘 우 처 하 며 부 터 마 지 하 야 보 클 닷 그 라 그  
리 하 면 호 지 니 디 오 고 드 디 아 니 하 리 라



佛告阿難不孝之子身壞命殄墮阿鼻無間地獄此大地獄縱廣八萬由旬四面鐵城周迴網羅其地赤鐵盛火洞然猛烈炎燼雷奔電爍洋銅鐵汁流灌罪人鉄蛇銅狗恒吐煙炎燠燒煮炙脂膏焦然苦痛哀哉難堪難忍鐵鏃鉄串鉄捷鉄戟劔刃刀輪如雨如雲空中而下或斬或刺苦罰罪人歷劫受殃無時間歇又令更入地獄中頭戴火盆鉄車分裂腸肚骨肉焦爛縱橫一日之中千生萬死受如是苦皆因前身五逆不孝故獲斯罪

부레아란드려니루샤디브호주시기주그  
면디옥의싸디스니이디오기스면니외로  
형스고그블로에엇고블도브트며우레티  
며무싯프리죄지스사르미게흐르며외비  
암과외가히당성을보즐토하야죄이니모  
미타디니셀오미그지업고외적곳과외아  
치와한도칼히비오디가공증으로스려버  
히며디르며하스니이런앙이롤만나스니  
라또다룬디오기다시드러머리예블로호히  
이엇기든외술위로오장을의여네니셔와

솔히타디여흐티디느니라하르스이에인  
천번주그락세라하느니다전싱의다스가  
짓브호하딘죄로이디오과드느니라

尔時大衆聞佛所說父母恩德垂淚悲泣告於  
如來我等今者云何報得父母深恩佛告弟子  
欲得報恩為於父母重興經典是真報得父母  
恩也能造一卷得見一佛能造十卷得見十佛  
能造百卷得見百佛能造千卷得見千佛能造  
萬卷得見萬佛緣此等人造經力故是諸佛等  
常來擁護會使其人父母得生天上受諸快樂

未離地獄者

데 지다 올며 세 존의 술 오디 이 제 엿 데 하야  
사 부모의 은 날 같 푸 리 잇고 세 존 니 니 리 사  
디 부모의 은 날 같 고 차 한 면 이 형 을 다 시 의  
우 라 한 권 인 은 면 하 후 데 보 고 요 권 의  
면 연 후 티 보 보 고 일 만 권 인 은 면 은 마 부 티  
를 보 니 라 이 사 귀 미 형 인 은 마 부 티 보 보  
부 데 와 용 호 하 야 니 사 귀 미 보 모 데 하 날 후  
히 가 즐 거 은 이 를 만 다 게 하 모 영 영 이 고 아  
슈 고 를 여 히 게 하 니 라

爾時大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  
非人等天龍夜叉乾闥婆及諸小王轉輪聖王



是諸大眾聞佛所說各發願言我等盡未來際  
寧碎此身猶如微塵經百千劫誓不違於

如來聖教寧以百千劫拔出其舌長百由旬鐵  
犁耕之血流成河誓不違於

如來聖教寧以百千刀輪於自身中左右出入

誓不違於 如來聖教寧以鐵網周匝纏身經

百千劫誓不違於 如來聖教寧以剉碓斬碎

其身百千萬斷皮肉筋骨悉皆零落經百千劫

終不違於 如來聖教今時阿難白佛言

世尊此經當何名之云何奉持



黃好造  
티즈대중과모도사르미다그구발원인의  
이모멸신수터름글만너겨비츠나임디나도  
부터의교수를닛다아니호리이다형로말  
여내어잠기로가라피글러내히되어도부  
터의교수를닛다아니호리이다외그물로  
모물어위미어비천잡디나도부터의교수  
를닛다아니호리이다아라니부터씩솔오  
디이형의인호를엇터하니잇가

佛告阿難此經名為大報父母恩重經已是名  
字汝當奉持余時大衆天人阿脩羅等聞佛所

說皆大歡喜信受奉行作禮而退

부테아란느려니르샤디이경의이일호를대  
보부모은동경이라호노니이일호를디의  
기져근니라테지다부테의말씀듣고집고깃  
거테도호고를러와뫼히호니라

報父母恩重真言

曩謨三滿多沒馱喃唵識識曩娑嚩訶

佛說往生真言

曩謨三滿多沒馱喃唵唵林帝律尼薩嚩賀

佛說大報父母恩重經終

主上殿下壽萬歲  
玉妃殿下壽齊年  
世子殿下壽千秋

